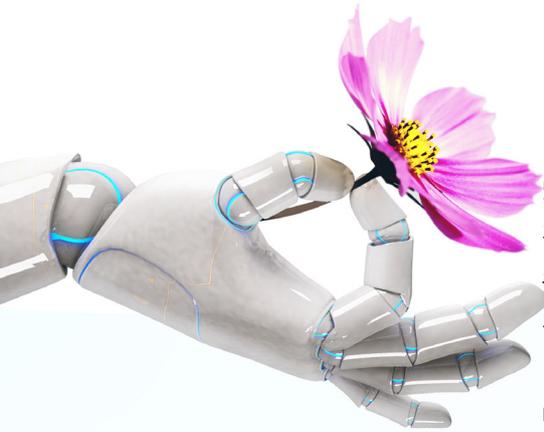


# KOKKOS 5

MAY 2024 VOL. 265



# “AI 능력을 갖춘 시대적 「복음전도자」를 세상에 내 보낸다”



## 「제2의 성서학과」, 「AI융합학부」 신설 인가

교육부는 지난 4월 16일 우리 대학이 신청한 ‘AI융합학부’ 신설을 허가하였다. 입학정원은 55명이다. 신설되는 ‘AI융합학부’는 인공지능전공, AI휴먼서비스융합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등 3개 전공을 갖는다. 당초 순증 40명 포함 95명을 신청하며 각 전공당 30~35명의 정원을 배정하는 계획이었으나 55명만 허가됐다. 각 전공의 정원은 지원자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해 갈 계획이다.

신설 ‘AI융합학부’의 인공지능 전공은 전 산업의 필수 기반으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분야의 인력 양성은 정부의 전략적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AI휴먼서비스융합전공은 인공지능과 현재 우리대학의 각 학과와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전공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호학과와 헬스케어 의료와 사회복지학과의 복지 및 교육은 인공지능의 핵심 응용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우려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공지능의 규제, 관리, 방향성 제시를 위한 성서학과의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은 기존의 학과를 융합학부에 편입 하고 있다.

‘AI융합학부’ 신설에 따라 기존학과 입학정원도 조정 되었다. 감축 인원은 성서학과 -3,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각 -6명,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5으로 감축인원 도합 20명이 새 학부의 입학정원으로 편입되고, 이밖에 편입학 여석의 5명, کم소의 남은 인원 30명이 더해져 전체 55명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 내 모집은 성서학과 60명,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각 34명, 간호학과 45명, ‘AI융합학부’ 55명 도합 228명을 모집한다. 교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AI융합학부’의 신설과 입학정원조정안을 의결하였다.

‘AI융합학부’ 신설에서 그동안 우리 대학이 희망하던 순증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학부를 ‘제2의 성서학과’로 육성하여 높은 영성과 바른 인성 그리고 AI능력을 갖춘 시대적 「복음전도자」를 세상에 내 보낸다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넘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성서대학교  
**AI 융합학부**  
**신설 확정**  
**55명**  
| 신설 전공 |  
인공지능  
AI휴먼서비스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다시학교

## 하베르 ( 롬 16: 1~16 절 )

### 구광면 목사(교목실)



유대인의 교육법을 말하는 하브루타는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베르에서 유래했다. 유대인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 중 하나는 협력과 토론 문화 ( 친구 ) 가 있느냐 없느냐다. 우리 나라 사람도 유대인처럼 세계적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 하지만, 정작 세계 우수 기업은 한국인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유가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마지막에 유대인의 협력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바울이 거명한 이름 앞에 나의 보호자 ( 2 절 ), 나의 동역자 ( 3, 9 절 ), 나의 사랑하는 ( 5, 8, 9 절 ), 많이 수고한 ( 6, 1 2 절 ), 인정함을 받은 ( 10 절 ),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 12 절 )... 한

마디로 훈장을 붙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 둘째, 소개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요 공동체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셋째, “문안하리” 는 말씀이 16 장에서 18 번이나 반복된다. 서로 알아주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마 12:46~50, 막 3:31~35 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였고 바울도 복음을 통해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 것이다. 5 월에는 주 안에서 격려하고 협력하는 새 가족 공동체인 하베르가 일상을 통해 늘어나길 기도한다.

## 제 8 대 최정권 총장 취임식

5월 13일 오전 11시  
로고스홀



한국성서대학교 「제 8대 최정권 총장 취임식」이 개교기념일인 5월 13일 오전 11시 로고스홀에서 1부 개교기념 예배(송태근 목사 설교)와 2부 총장 취임식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동문과 한국성서선교회에 속한 교회 성도들 및 형제 기관 관계자, 지인과 친인척 등이 참석한다.

총장 취임식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휘진 법인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정권 총장에 대한 약력 소개와 총장 임명장 수여, 취임 선서, 신임 총장의 취임사로 이어진다. 최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대학이 추구해 갈 복음에 대한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학교 발전 전략 포부 등을 제시하면서 복음전도자 양성을 향한 보다 선명한 색채를 밝혀 줄 것으로 보인다.

식은 이외에도 교직원 중창단의 축하와 축사, 권면, 그리고 총동문회와 교수부, 교직원 회인 우리회 등이 준비한 축하 기념품 증정 순서가 있고 교가 제창을 끝으로 취임식은 막을 내리게 된다.

## 2024년 밀알 축제 5월의 교정을 달아오르게

‘대학 낭만 지수  
학업 만족도까지 치솟기를’

2024년 밀알 축제가 개교기념일인 5월 13일 교내에서 다음총학(회장 채경훈) 주관으로 진행된다. 축제는 ‘다음과 세계로 나아가는’을 주제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축제문화 공유 및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를 이어간다.

오전 9시에 학과별 세미나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 각 동아리 부스마다 각종 음료와 간식 먹거리장터, 플리마켓이 잔디마당 곳곳에 들어선다. 개성과 취향을 고려한 게임존과 문화체험존, 청춘의 고단함을 녹여 줄 리플레이시 존, 초록이 무성한 야외쉼터에서 재충전의 여유까지 경험할 수 있다. 시끌벅적하게 펼쳐질 장기자랑과 각종 이벤트, 초청 아티스트의 현란한 무대가 5월의 교정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것이다.

채경훈 총학 회장은 “코로나 이후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축제를 통해 대학 낭만 지수와 학업 만족도가 올라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주요 보직자 설립자 묘소 성묘

비전과 정체성 확인, 사명에 충성을 다짐



최정권 총장과 주요 보직자가 설립자가 잠든 일동 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KBU 정체성을 굳건히 다짐하고 있다.

24일, 최정권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설립자 일립 강태국 박사의 포천시 일동 묘소를 방문 성묘하였다.

최정권 총장의 헌화로 성묘의 기도회는 시작되었고 최은희 학사 부총장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한국성서대학을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기도하였다. 강규성 부총장은 설립자의 저서 「나의 증언」을 인용하여 “한국성서신학교의 중심이 되는 교과서는 신·구약성서이다...” “한국성서신학교의 사명은 땅끝까지 천국운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선 전국 복음화 하는데 꼭 필요한 역군들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대목을 참석자와 함께 낭독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스승 강태국 박사와 생전에 나눈 대화를 회고하며 “설립자의 비전과 정체성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여러 교무위원과 상기하며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케 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 유아흡연위해 ( 危 害 ) 예방 가정연계 프로젝트 수주

김승옥 교수  
총액 8억 4천만 원



김승옥 교수

김승옥 교수(영유아보육학과, 평생교육원 원장)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주한 '2024 유아흡연위해(危害)예방 가정연계프로그램'을 수주하였다. 수주 총액은 8억 4천만 원으로 개인 수주액으로는 우리 대학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시행 기간은 2년(2024~2025년)이다. 사업 주관부서는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며 김승옥 교수가 프로그램 매니저로서 사업 총괄을 맡는다.

유아는 가정과 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유아의 건강 및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유아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알고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실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동화기반 가족그림책 가정연계 프로그램이다. 이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놀이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가정에 배포하고 4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 병행된다. 둘째, 지역기반 가족체험행사 가정연계 프로그램이다. 이는 다중이 모이는 전국 각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여 유아 흡연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놀이형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 두 사업의 목표 인원은 2024년 75,000명(유아 25,000명 포함), 2025년도에는 78,750명(유아 26,300명)이다. 김승옥 교수는 2023년에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신구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다.

## 2023 KBU 교육성과공유회 개최

학생 등 모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크게 올라



최은희 학사부총장이 졸업생 핵심역량과 전공능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 KBU 교육성과공유회가 지난 24일 로고스홀에서 교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성과공유회에서는 2023년 9월 실시한 교육만족도 조사,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와 졸업예정자들의 핵심역량, 전공능력 달성 결과가 발표 되었다.

Part 1에서는 장인순 성과관리실장이 교육만족도 조사와 K-NSSE 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다. 우리 대학 교육만족도는 종합 평균 75.3점이었고 전공교육 만족 83.4점, 교양교육 79.3점으로 전년(78.4점) 대비 0.9점 상승하였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201명)에서 종합만족도가 82.3점으로 매우 높았고 졸업생(411명) 종합만족도는 76.5점으로 전년 73.6점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산업체 조사(102개 기관)에서 본교 출신 직원채용에 대해 긍정 평가가 92.2%로 매우 높았고 부정 평가는 전혀 없었다. K-NSSE 조사에서 백분위 환산점수는 65.4점으로 전국평균 59.4점, 수도권 중소형 59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관련 기사 5면).

Part 2는 최은희 학사부총장이 졸업생 핵심역량과 전공능력 달성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 졸업예정자들의 KBU 핵심역량 측정 평균은 77.1점으로 평균 70점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전공능력 평가 결과 5개 학과에서 PO 6~7개 성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70% 이상 '중'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면에서 최정권 총장은 큰 성과를 이룬 교직원들을 치하하고 "작고 아름답고 강한 KBU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2023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72.2%(서울 수도권 15위, 전국 31위), 신입생 충원율 100%(서울 수도권 4위, 전국 7위), 재학생 충원율 103.8%(서울 수도권 12위, 전국 15위) 등 대학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 우리 대학 교육의 질과 성과 최고 수준

## 2023 년 학부교육실태조사 (K-NSSE) 결과 발표

4 개 영역, 15 개 요인, 22 개 지표 등 전 진단 항목에서 월등히 앞서

우리 대학 학부 교육의 질과 성과는 전국 대학 최상위 수준임이 대학 교육연구기관인 「교육과미래연구소」(성균관 대학 소속)의 2023년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Korea-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실태조사는 4개 영역, 15개 요인, 22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지표 별로 한국성서대학교와 모든 참여대학 (108개교), 수도권 중소형(24개교), 자율개선대 수도권 중소형(21개교)의 값을 비교하여 한국성서대학교의 위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 진단의 모든 영역, 모든 요인, 모든 지표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표 참조).

K-NSSE의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우리 대학 평균은 65.4점으로 전국대학 평균 59.4점보다 6점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 점수는 학습참여 영역 61.7점(전국평균 52.4점, 이하 같음), 학습자심리 영역 68점(64.7점), 학생성과 영역 66.6점(61.1점)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대학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반성적 학습’ 요인은 우리 대학이 77점(70점), 효과적 수업전략 74.8 점(69.6점), 전공지식·기술 73.5점(70.8 점) 등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는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겪는 학습참여(Student Engagement), 인간관계, 대학 및 대학구성원에 대한 인식 등 대학경험생활(College Experience)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정도와 이로 인한 지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 및 발달 정도”를 확인하는 조사

이다. 이 조사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108개 4년제 대학, 61,432명이 참여하였다.

2023 년 K-NESS 세부 요인별 결과표

영역	세부 요인 및 지표	우리 대학	전국 대학	수도권 중소형	자율개선 수도권 중소형	
<b>전체 평균</b>		<b>65.4</b>	<b>59.4</b>	<b>59.0</b>	<b>58.9</b>	
학습 참여	학업도전	유의미 학습	70.5	60.0	60.6	60.4
		반성적 학습	77.0	70.0	72.0	71.8
		자기주도 학습	68.0	63.6	64.3	64.2
	교우와 학습	협력 학습	73.4	63.6	62.4	62.1
		다양한 그룹과의 교류경험	51.8	40.2	41.1	40.9
	교수와 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54.2	37.4	35.0	34.8
		효과적 수업전략	74.8	69.6	68.8	68.5
	대학환경	교우 관계 만족도	72.6	65.8	64.4	64.2
		교수 관계 만족도	67.2	64.1	62.0	62.0
		직원 관계 만족도	62.2	61.1	59.5	59.6
		지원적 대학환경	57.9	48.2	48.1	48.0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58.6	46.7	46.0	45.6
		신입생 세미나	57.6	41.0	38.4	38.5
		학습공동체	56.9	48.4	46.4	46.2
		멘토/튜터 활동	45.8	37.9	37.5	37.3
		멘티/튜티 활동	46.5	35.2	32.9	32.9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42.5	28.8	26.2	26.4
		국제교류 프로그램	26.1	17.1	15.6	15.8
		교수연구 프로그램	34.8	20.6	18.3	18.5
	산업현장 참여프로그램	38.2	22.9	19.3	19.5	
	고학년 대상 활동	38.3	24.0	21.1	21.4	
	<b>학습 참여 평균</b>		<b>61.7</b>	<b>52.4</b>	<b>51.6</b>	<b>51.5</b>
학습자 심리	학업적 자기효능감	68.4	65.1	65.0	64.9	
	학업동기	67.6	64.2	63.8	63.7	
<b>학습자 심리 평균</b>		<b>68.0</b>	<b>64.7</b>	<b>64.5</b>	<b>64.3</b>	
학생 성과	진로성숙도	70.3	63.8	62.5	62.4	
	대학몰입	58.3	57.6	55.9	56.1	
	글쓰기	61.7	53.9	54.4	54.4	
	말하기	62.9	55.1	54.7	54.6	
	통계분석력	62.8	56.3	56.8	57.0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사용	61.6	52.2	53.8	54.0	
	전공 지식·기술	73.5	70.8	70.2	70.1	
	직업 지식·기술	69.2	64.9	63.0	62.8	
	비판적·분석적 사고	66.3	59.1	59.7	59.8	
	현실문제 해결력	67.0	60.3	59.9	59.9	
	협동 능력	71.9	66.4	66.4	66.2	
	다양성 이해	70.7	67.3	67.4	67.2	
교양있는 시민의식	67.2	63.6	64.0	63.6		
가치관·윤리관 형성	66.9	63.7	64.0	63.8		
<b>학생 성과 평균</b>		<b>66.6</b>	<b>61.1</b>	<b>61.0</b>	<b>61.0</b>	

## ‘짜투리 스터디’ 참여자 모집

공강 시간을 활용하는  
학습의 지혜



교수학습센터(센터장 윤혜진)에서 ‘짜투리 스터디’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짜투리 스터디’ 학습은 학기중 수업과 수업 사이의 공강 또는 통학 전후마다 조금씩 비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을 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16일 까지 40일간 진행된다. 한 주간 짜투리 시간의 합이 총 3시간 이상을 임해야 하며 팀 별이 아닌 개별 학습 형태를 취한다. 열풍타 어플리케이션으로 활동을 인증하며 LMS 또는 구글 폼으로 진행한다. 모집 기간은 5월 6(월)까지이다.

‘짜투리 스터디’는 학생 스스로 자기와의 굳건한 약속하에 자발적인 학업 습관을 실천하도록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학습 능력은 물론 효율적인 시간 관리능력까지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 전화 02-950-5542

## 1 학기 중간고사 무감독시험 44.7%

무감독시험  
우리 대학의 전통이자 원칙

2024-1학기 중간고사에서 무감독시험 비율은 44.7%로, 150개 지필고사 과목 중 67개 강좌만 무감독시험을 실시하였다. 일립교육과는 14개 강좌 전부를 무감독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이 성서학과로 21개 강좌 중 18개 강좌를 무감독으로 치러 85.7%의 무감독시험 비율을 보였다. 영유아보육학과는 28개 과목 중 20개 과목(71.4%)을 무감독으로 실시하였다. 반면 15개 지필고사 과목 거의 전부는 감독시험을 보고 1, 2개 과목만 무감독시험을 봐 무감독시험 원칙을 외면한 학과도 있었다.

교학처 유미나 교학팀장은 “직전학기(2023년-2학기)의 지필고사무감독시험 비율이 38%(54강좌/142강좌)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학기는 상당한 진보를 보인 것”이라 평가하고 “무감독 시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감독시험은 우리 대학의 오랜 전통이자 시험 원칙으로 이어져 왔다. 규정으로 묵지 않는 것은 성서대학의 자부심 때문이다. 코람데오(Coram Deo, 신전의식(神前意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르치는 학교의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며(義)롭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대학의 교육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극동방송 (FM106.9)

## 최정권 총장 ‘1분 컬럼’

한반도 복음화와 학교 홍보에 도움

최정권 총장이 4월 29일(월)부터 극동방송 라디오(FM106.9) 채널에서 ‘1분 컬럼’을 시작하였다. 성경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전하며 시간은 매일 오후 1시 59분에 방송된다. 일주일 간(7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매주 월요일마다 새롭게 바뀐다.

극동방송 ‘1분 컬럼’이 우리 대학의 비전인 한반도 복음화를 돕고 학교 이미지 제고와 홍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신 · 편입생 중 미신자 36%, 역대 최고

성경 안 읽음 47%, 기도하지 않음 32%, 충격적

2024학년도 신·편입생 가운데 미신자 93명, 3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4년(21-24)이래 최고의 수치이다. 21년 16%, 22년 19%, 23년 25%이었던 것이 24년 36%로 경총 뛰었다. 이 같은 사실은 매년 교목실이 실시하는 신·편입생 신앙상담 결과 드러났다. 올해 신·편입생은 268명, 그 중 상담에 응한 학우는 262명이다.

충격적인 것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18%, 46명에 불과했고, 기도 생활도 29%, 77명만이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학우가 47%, 123명이었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학우도 32%, 83명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도 하지 않는 학우가 21년 16%, 22년 28%, 23년 27% 였는데 올해는 32%가 되었다. 교회 출석여부, 세례/미세례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표 참조).

신앙상담은 지난 3월 20일(수) 신·편입생 대상 전도교육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는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하였다.

교목실에서는 미신자 학우에 대한 개별 상담/전도를 4월 29일부터 시작하고, 신·편입생 전도집회도 5월 22일 가질 예정이다. 강사는 CCC의 송성은 간사다.

2024 학년도 신 · 편입생 신앙상담 결과 보고 (2024.4.12)

	전체	상담	미응답	2024	2023	2022	2021
상담율	268	262	6	상담율			
				97%	99%	89%	92%
신자/미신자	신자		미신자	미신자			
	169명(65%)		93명(36%)	36%	25%	19%	16%
성경 읽기	매일 규칙적	생각날 때	읽지 않음	읽지 않음			
	46명(18%)	93명(36%)	123명(47%)	47%	43%	48%	33%
기도 생활	매일 규칙적	생각날 때	기도 안 함	기도 안 함			
	77명(29%)	102명(39%)	83명(32%)	32%	27%	28%	16%
교회 출석	출석		미출석	미출석			
	169명(65%)		93명(35%)	35%	32%	32%	25%
세례/미세례	세례		미세례	미세례			
	168명(64%)		94명(36%)	36%	27%	30%	20%

## 장애인의 날 기념 예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지용 전도사

16일 ‘장애인의 날’ 기념 예배에서 정지용 전도사가 ‘서로 봉사하라’ (막 2:1~5)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지용 전도사는 “장애를 죄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시각이 시대를 초월해 왔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해 예수는 “그 누구의 죄가 아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요 9:3) 하는 뜻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장애인인 정지용 전도사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연합하여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의지가 이어지길 바란다. 장애인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작품이며 선물이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파트너십을 기억하며 이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서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하였다.

## 2024년 제 2 차 이사회 개최

포천양수발전소  
부지 매각 대금 승인

2024년 제 2차 이사회(이사장 강우정)가 18일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대학 소유의 포천양수발전소 예정지 토지 보상 금액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시한 49억8천1백만원을 수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사회는 또 갈멜관 증축을 실제 수행해 나갈 '갈멜관증축위원회(가칭)'의 조직을 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인선 등을 이사장과 총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2023학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인의 결산 규모는 14억 9천만 원이고 학교는 178억 8백만 원이었다. 이 외에도 수탁기관인 대학어린이집 등 3곳의 감사보고와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 2024년 성서대 출신 목회자 세미나

한국성서선교회  
교육위원회 주최

2024년 한국성서선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춘석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 밀알관 회의실에서 30여 명의 우리 대학 출신 목회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창선(성서학과) 교수가 '고대 문화적 배경과 함께 읽는 신약 이야기'를 주제로, 표길홍(일동성서교회 담임) 외래 교수는 '설립자 강태국 박사 12신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하였다.

## 삼일교회 1 천 2 백만 원 후원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학생 식당의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해 달라며 1천 2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송태근 목사는 식당 내 시설과 환경조건을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삼일교회에서는 우리 대학에 장학금을 꾸준히 후원하였으며 지난 2018년에는 갈멜관 승강기 교체 시공 전액인 8천 5백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

## 정현미 동문 1 천만 원 후원

정현미(67회, 성서)동문이 학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정 동문은 "모교에서 받은 사랑이 가슴속에 빛으로 남아 있다"며 후원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정 동문은 지난 2021년에도 무명으로 1천만 원을 후원, 모교 사랑의 묵묵한 선행을 실천해 주었다.

## 산학협력단 이지민 임용



산학협력단에 이지민 씨가 임용되었다. 이지민 직원은 본교 영유아보육학과와 보육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한바 있다.

이지민 씨는 "모교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직원은 산학협력 연구 과제와 기획실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총장의 편지

최정권 총장

## KBU,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

### 우리 대학은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게 약점일까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개구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개울가에 서 놀던 새끼 개구리들이 생전 처음 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집으로 뛰어가 아빠 개구리에게 자기가 본 괴물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했습니다. 아빠 개구리는 새끼들이 말하는 괴물이 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빠 개구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아빠보다 커? 라고 물었습니다. 새끼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괴물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자 아빠 개구리가 온몸에 공기를 마시면서 터질 때까지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배가 터졌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소가 될 수 없고 소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개구리나 소나 자신들이 창조함을 받은 대로 살면 됩니다.

총장인 제 눈에도 우리 학교는 커져야 할 이유도 더 커질 수도 없습니다. 작지만 강하다는 말속에는 작다는 것이 약점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작은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학교가 크고 건물이 많다고 학생이 그 캠퍼스를 다 쓰는 게 아니라 4년 내 내 자기 학과 건물과 강의실만 쓰다가 졸업합니다. 우리 대학은 적기 때문에 전체 캠퍼스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재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졸업하지만 우리 대학은 동아리나 전도반을 통해 1 학년에서 4 학년까지 치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함은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우리 대학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장점이 가능한 건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밀알도 다수가 아닌 하나여서 한 개, 한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사 60:22)  
작은 건 우리의 강점입니다.

### 우리 대학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조명이 환하게 밝혀진 우리 교정을 보고 낮보다 밤이 더 이뻐 보이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캠퍼스는 작고 아름답습니다. 총장인 저는 이 학교에 색상을 입히고 디자인까지 더해 더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하 ‘헤세드’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커피엔 8로우’에서 진한 커피와 시원한 음료를 들고 ‘만나보리’ 광장에 앉아 5 월의 햇살을 즐기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건물보다 나무보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우리 학생들이 그 젊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안에서 삶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정도 학생보다 아름답지 않고 어떤 꽃보다 더 귀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교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

### 우리 대학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이 설립된 지 72년, 그 긴 세월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하게 살아 남은 것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일꾼을 보내는 학교로 그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 않았고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강할 겁니다. 그리고 겸손할 겁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을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강한 대학이 될 겁니다.



조윤경 교수(영보학과)

## 컬럼

교수

학생



윤다연 (간호 4)

## 또 다른 기한(Season)과 때(Time)

저는 이제 8 월이 되면 공식적으로 일을 그만 두는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요사이 떠오르는 노래는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이라는 1965 년에 빌보드 1 위를 했던 미국 록 그룹 The Byrds 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 방식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그 목적과 때와 기한이 있으며, 이는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마주한 그 시점에는 그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삶의 기한과 때를 크게 나눠 보면, 부모님과 살면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한 1 막을 거쳐, 취업하고 결혼하고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약 40 년간 직업인으로 일한 2 막이 있습니다. 이제 2 막이 끝나고 은퇴기의 3 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요사이 만나는 분마다 은퇴하고 뭐할 거냐고 물어 봅니다. 일단 일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가족과 지인에게 옮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지원해 주었던 지체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저도 그들의 지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뭔가 늘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분주했던 시간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제철 여행과 요리 등으로 풍요롭게 채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 3 막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기한, 때의 의미를 이전보다 더 잘 깨달으며 지혜롭고 평온하게 노년을 살고 싶습니다.

성서공동체의 우리님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으며,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한 기한과 때로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꿈

우리가 자며 꿈꾸는 것이 때때로 좋은 상황을 낳거나 언짢은 일이 되기도 한다. 꿈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과정으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날의 꿈에 따라 컨디션에도 약간의 영향을 준다. 기분 좋은 꿈을 경험하면 그날 하루가 상쾌해진다. 반대로 악몽과 접하면 기분이 찜찜하거나 일상이 잘 내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인생에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 따라 마음 속에 그 꿈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꿈을 꾸지 않는 것은, 깊게 숙면하는 것이 될 수도, 어떠한 삶의 목표 없이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꿈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해석할 때, 꿈이 없다는 것이 제법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몸이 잠자는 그 시간에 충실히 반응해 꿈을 꾸지 않았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까. 나는 매일 잠들면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잠에서 깨면 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날마다 꿈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지만, 삶에서는 매일의 나에게 충실히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꿈이 없다는 것은 내게 큰 콤플렉스이자 단점이라고 느끼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의 나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들어 온 시간을 통해, 나는 내가 어떤 것이든 꿈꿀 수 있는 사람임을 느낀다. 언제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갈 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꿈을 꾸며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지만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면 자신도 모르게 꿈을 꾀운 나의 모습을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반세호의  
목양칼럼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 광야의 영성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민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民數記, Numbers)는 책의 제목처럼 1~4장, 26장에 실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실려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볼 때 민수기를 따분한 책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따분한 책이 아니라 흥미진진하며 가슴이 뛰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본래 민수기는 숫자의 책을 넘어 ‘광야의 책’입니다.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베미드바르’(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의 대부분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광야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내광야, 바란광야, 모압광야에서 경험된 풍성한 영적 교훈을 들려줍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일이면 족히 걸어가고도 남은 거리를 어쩌다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가 있었지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승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광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영성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땀과 전갈이 있고 마실 물도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광야의 길 너머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며 매일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눈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광야 한복판 성소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중한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18

#### ‘신록예찬’ (新錄禮讚) 중에서 1) 이양하

봄·여름·가을·겨울, 두루 사시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에 녹엽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량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빈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 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https://blog.naver.com/okgoodmiso/222718290616>

오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소중한 만남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다. 부부가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교육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 깊은 만남의 계절! 그러기에 오월은 눈부실 수밖에 없다.

자연이 내리는 혜택을 가장 풍성히 나타내는 오월, 그 오월을 환하게 빛내줄 조팝나무·이팝나무·아까시나무꽃이 배부르게 피고 있다. 이러한 감사의 계절에 이양하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비록 빈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 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1) ‘신록예찬’ 일부를 시행 배열로 내려서 인용함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 개로비 언덕 (Garrowby Hill 1998)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4호



<https://collections.mfa.org/objects/51520>

지금도 아쉬움이 큼니다. 한국에서 열린 호크니의 전시회를 놓친 아쉬움이 이 글을 쓰며 더 커집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가 모짜르트를 이해하게 된 건 그의 곡이 아니라 그가 남긴 서신이었다고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 호크니의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건 그가 남긴 대화록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시가 사람의 말을 듣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듯이 눈에 비쳐진 그의 글들이 영상으로 변하는 걸 봅니다.

호크니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몰입입니다. 그는 사물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리고 열심히 바라봅니다. 마치 불 땀에 물린 환자들이 살길을 찾아 모세의 늦 땀을 바라보듯이 그 바라보기가 그의 예술이 된 겁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의 미술은 언제나 바라보기부터 시작되었고 그 바라봄이 그 자신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가 지나다니는 개로비 언덕은 그의 바라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길은 앞이 보이는 직선보다 굽어진 곡선이고 아래로 향한 길보다 위를 향한 길입니다. 그가 발로 걸었을 길 바닥의 색은 햇살을 머금은 색입니다. 힘들게 정상에 올라 드넓은 들판을 보는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소원은 원본을 보는 겁니다. 초록빛의 먼 들판보다 붉은빛을 머금은 흙과 나무 등지를 눈으로 만져 보고 싶습니다. 만지는 것이 촉감이 아닌 시선인 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라면 저 길을 거꾸로 올라 갈 겁니다. 눈으로는 멀리 들판을 향하고 등은 언덕을 향해 뒷발로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아무도 없는 저 공간을 즐길 겁니다.

어린이집 전면에 화단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대학어린이집

### 안전한 보행환경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길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어린이집 건물 입구 면까지 주차를 허용해 아이들의 보행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성서대학교 사무팀과 시설관리팀 협조로 주차 구획 및 회차 구간 변경, 도보 표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판재를 이용해 이동식 화단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등의 작업이 25일 완료되었다.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이 개선되고 인근을 오가는 학생들도 안전한 보행을 이어가게 됐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긴장했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 라고 말했다. [밀알반 정미옥 교사]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사업에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001호

### 지역복지자원연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633호와 관련하여 「2024년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운영기관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결과

연번	기관명	선정여부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선정
2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선정
3	복서동종합사회복지관	선정
4	방화6동종합사회복지관	선정

2024년 3월 27일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선정

서울시청 정신보건과 공모 사업인 지역복지 자원연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최대 6,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채용도 가능하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우물, 양극성정동장애와 조현 등 정신질환으로 어려움 겪는 주민을 발굴,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연계, 지원 예정이다. 최근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에 놓인 클라이언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과 복지가 결합된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 건강 서비스 모델 제시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주민에게 전문적이고 통합된 지원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관리팀 최미정 팀장]

어린이집 앞 화단에서 부모님과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 텃밭 가꾸기

4월 열린 어린이집의 날로 부모와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였다. 부모들이 텃밭에서 직접 잡초를 뽑고 흙 고르기를 영유아에게 보여주며 작업이 시작되었다.

영유아와 부모가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영아반은 작두콩과 상추 모종을, 유아반은 가지와 감자, 토마토를 심고 자연이 주는 감사함을 갖도록 하였다. 부모들은 도시에 살며 흙을 만져 본 지 오래되었는데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며 힐링을 가졌다고 말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며 앞으로 텃밭을 가꿀 아이들에게 매일이 설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혀 주었다.

[나리반 전보람 교사]

대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활짝 핀 벚꽃 아래서 아름다운 순간을 남겼다.



상선대학교회

### 사진 촬영

7일, 전 교인이 모리아관 앞 벚꽃길 주변에서 벚꽃 사진과 장수 사진을 촬영하였다. 쌀쌀한 날씨와 거친 바람에도 불구하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성도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었다. 해마다 이맘 때 우리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각 부서는 예배가 끝나고 어린 자녀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들뜬 마음으로 벚꽃 주변에 모였다. 사진은 각 부서별 혹은 가족끼리, 또는 성도별로 삼삼오오 모여 소중한 순간을 앵글에 담았다.

특히 70세 이상 성도들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전체 사진 촬영은 3, 4 남전도회에서 섬김과 사랑을 보여 주었다. [강성훈 목사]

딸기농장에서 잘 익은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딸기 농장 현장 체험

16일, 달콤한 딸기 농장에서 현장 체험을 가졌다. 딸기 농장에서 주렁주렁 열린 빨간 딸기의 수확 방법도 알아보고, 손으로 따서 먹으며 달콤함을 만끽하였다.

유아들은 손으로 딸기를 잡을 때의 촉각과 시각, 달콤한 후각의 황홀함을 경험하였다. 탐스런 딸기를 입 안에 넣고 “달콤해요”, “딸기가 제일 좋아요” 등의 감정도 표현했다. 수확한 딸기를 골라 크기를 친구들과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딸기꽃도 관찰하며 즐겁게 보냈다.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 아빠랑 함께 먹고 싶다, “내일 또 오고 싶어요” 등을 나누며 농장에 다녀온 즐거움을 밝고 환하게 표현하였다. [푸른반 강유나 교사]

생생육아 솔루션 부모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 생생육아 솔루션 부모교육

원자력병원과 연계한 ‘생생육아 솔루션’ 부모 교육이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회 진행하였다. 1회차는 언어발달지원 솔루션으로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되는 원인과 실행 방법을 전했다. 2회차엔 ADHD 발견 및 치료로 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단 및 치료 과정과 자녀의 긍정적 발달 지원전략을 논의하였다. 3~4회차는 미술작업을 통해 육아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치유를 가졌다.

교육은 원자력병원 신경발달 클리닉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와 함께 신경발달 지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치료와 지원을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에서 진행된 현장학습



상계동어린이집

###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현장학습

5일, 만 4, 5세반 유아들은 서울어린이대공원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봄을 맞은 대공원에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면서 상상나라 현장으로 들어갔다. 각층 마다 테마별로 다양한 체험 놀이가 준비되어 유아들을 기분 좋게 맞이해 주었다.

놀이터에서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경험해 갔다. 체험을 다 마치고 맛있는 김밥과 간식을 먹는 즐거움도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다.

식사 후에는 동물원을 둘러보며 사자, 코끼리, 원숭이, 물범 등을 관찰하고 그들의 움직임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주인공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



늘사랑어린이집

### 식목일 행사

5일, 식목일 행사로 밭에서 자라는 콩을 배우고 심는 시간을 가졌다. 콩은 일상 식탁에서 반찬으로 자주 접할 수 있다. 콩을 화분에 심어 잘 관리해 수확하는 과정을 시청각 자료로 설명했다.

콩의 종류와 반찬 조리방법, 그리고 콩나물로 자라는 과정까지 삶과 밀접한 콩에 관심을 높여갔다. 이후 콩을 좋아하는 재료로 꾸민 주전자 화분에 심었고 유아들은 싹이 잘 나오도록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작업을 잘 마무리했다.

식목일의 본 취지와는 벗어났지만 콩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로운 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자연 만물을 대하는 생명 의식과 사랑의 마음을 더해 준 시간이 됐다. [즐거운반 김한솔 교사]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3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삼일교회(웅산, 송태근 목사)	1200만원(운영)	성서말말선교회	105만원(운영)
리스템미니스트리	40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400만원(장학)	허성보	100만원(운영)
강우정, 강진(이사장)	229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 약정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8.3구좌 성서말말선교회	20구좌 정취진	<b>중앙성서교회</b>
1구좌 김선태 민다희 서유미 손윤숙	20구좌 성낙표	25구좌 임지영	2구좌 강영애, 신한성
신영옥 윤정숙 이마리 이 진	33.3구좌 리스템미니스트리	<b>부설기관</b>	<b>일반</b>
이학준 전미영/열매맺는교회	<b>교직원 및 가족</b>	3구좌 권효진 안미희	1구좌 김유벽 김은경 오현숙
2구좌 김두영 김영래 김예겸 박찬혁	1구좌 윤희진	5구좌 김선화	2구좌 강명옥 김옥석 김성래 정형태
이나연 이은애 이종희 이혜영	2구좌 강민경 강승현 정은상 한상만	10구좌 박빛나	최국열
임은령 장유정 정 완 지다는	5구좌 안정선 현우석	<b>수원교회</b>	<b>단체 및 기관</b>
최가현 최혜진	6구좌 최선희	1구좌 강동형	5구좌 다드림교회
5구좌 이부호 이정근 추유나	10구좌 김성경 김정숙 김현옥 김형미	<b>장자교회</b>	10구좌 (주)바다나라
6구좌 정동주	신금주	4구좌 권정숙	

## 기부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이부호 이유나 이정근 이지은
1만원 강삼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오채엽 용아름 우현아 유미정	김영태 김예겸 김용길 김원미	최경환 최승혜 추유나
강옥경 강은혜 강정민 강주옥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강춘자 고대운 고재민 곽미화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김지원 노민지 류종열 맹현진	세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구분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박상수 박재승 박주영 박혜숙	화도드림교회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솔기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6만원 정동주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신화영 심규리 안선례 오상석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기영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김진만 박세은 서광진 서수경
김도훈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신치선 함평대동교회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성근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11만원 유선미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익선 이재은 이정목 이종임	29만원 표길홍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종희 이한별 이현우 이혜영	32만원 성낙표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이해렬 이해성 이현무 이현섭	임수경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100만원 이례장학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성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105만원 성서말말선교회
김은주 김은찬 김은혜 김용환	임남연 임은성 임은진 임찬용	정성민 정영웅 정옥순 정 완	400만원 리스템미니스트리
김일준 김재현 김정희 김지선	장윤국 장익봉 장익식 전명수	조소정 조은별 지다는 최가현	<b>재학생 및 가족</b>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	1만원 권영희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전아를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추하은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김은주 김혜미 나예린 양은성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정선도 정영교 정윤미 정은희	한 솔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양주향 이동기 이미숙 이상란
남성희 노영민 노한나 노 만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황인숙 등대교회	이연신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문성영	정혜문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전계화 지중배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다희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권은지 김윤정 김재임 김지애	2만원 강현중 객은혜 권영진 권윤주
박경수 박경옥 박수진 박순임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민승철 민찬양 박기혁 박문용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애선
박윤복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민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김은미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손승현 양연선 우종연 윤문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박광규
박혜인 반혜민 반혜성 방지연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만나	박은영 박세신 박순옥 송동식
배은휘 배창경 백명희 백연옥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송서희 신동숙 연성희 오영미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최혜림 탁국현 탁운석 하수현	임유림 장영훈 전지혜 정솔기	이동수 이미영 이선경 이승진
서규원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조은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이승찬 이은영 이혜불 장영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예민 황형록	장은정 전옥소 정인숙 정해숙
손윤숙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홍정심 황예민 황형록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은애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최경애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강해든이 설에스터 황보혜영	5만원 강경옥 권민지 김기숙 김동완	최영숙 최창현 최장호 황미숙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열매맺는교회	김준오 김 진 남영란 남희경	3만원 박미영 박보봉 배정숙 송의택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2만원 고성호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박광필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전희문 최정규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김동원 김두영 김미나 김미향	양연주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기부자 명단

5만원 권오길 박석희 손미연 안종현 이재현 정주화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2만원 반요셉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정주아 조해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평화의교회 행복한교회
10만원 김승례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자선	1만원 김정희	
30만원 박지홍	15만원 김화영 박빛나 지주나	3만원 임윤창/어린이교회	
<b>교직원 및 가족</b>	20만원 김신덕 차 건	4만원 한지화	3만원 장문석
1만원 강신애 박하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박묘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이정은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100만원 허성보	7만원 이정선	3만5천원 박은영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문지애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소 조철남 최나영 한상민 한정숙	<b>권선제일교회</b>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b>이레교회</b> 1만원 손미희	4만원 정형채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우연 윤혜진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b>동광교회</b>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b>장자교회</b>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당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b>밀알교회</b> 1만원 서효정	<b>주향교회</b>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10만원 서미혜
6만원 권순범	<b>삼일성서교회</b>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b>중앙성서교회</b>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7만원 임환석	<b>서문교회</b> 1만원 강신애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b>퇴계원제일교회</b>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30만원 박순정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광규상 김덕현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b>성서대학교교회</b> 3천원 박용숙 9천원 광규상 오경모 이 천 정갑순 1만원 강경애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성은A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인영 김일선B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A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양태환 오종철 윤도진 이경미 이무현 이봉호 이소정 이승림 이영진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이주현 장근문 장진희 장홍림 전옥순 정선희 조영희 조정선 최영태 최인숙 하은희 한상실 한충현	<b>평원교회</b> 1만원 성경아	<b>단체 및 기관</b>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지갯길내서날 /주님산교회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짬/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 /분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 /상일교회/에일에드컬 /천성교회/행진교회
11만원 최지은	2만7천원 김영현	<b>평화교회</b> 1만원 안종민 안지선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봉수)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3만6천원 강미경 권정화 김민자 김인자 김춘환 박 선 박태수 반해성 방미경 유중엽 이경신	<b>중앙교회</b> 1만원 윤은정	20만원 (주)소원기건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4만5천원 권경만 김순옥 노봉환 박은경 반해민 유희창	<b>함평대동교회</b> 1만원 김희경	30만원 한민제일교회
20만원 김승우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오윤선 정혜덕 정휘진 조윤경	5만4천원 김유미A 김현석 반세호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b>효성교회</b> 1만원 진경숙 2만원 진효숙	50만원 동서환경(주)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9만원 강성훈 권태완 길용희 김원태 박세건 박은오 박은우 이정임 최강희 최순남 한진호	<b>일 반</b>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병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혜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위샬러듀	400만원 한국장학재단
35만원 최선희	<b>성서선교회</b>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1200만원 삼일교회(용산)
100만원 홍설자	3만원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b>소계(20240321~20240420)</b> 57,089,502
229만원 강우정.강 진	5만원 동두천성서서삼교회		<b>누계(20240301~20240420)</b> 103,549,372
<b>부설기관</b>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재택 최미정 최영운 호한나	<b>수원교회</b>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영광 홍성호		
2만원 진양희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장나혜 장윤정			

한국성서대학교 4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5,085,112원)

강우정(이사장) 2,285,112 / 위대한(일본) 1,500,000 / 성서말일성교회(동문) 1,000,000 / 오윤선(교직원) 200,000 / 박세은(재학생) 1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17 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2,040,000원)

10구좌 김동관(동문) / 3구좌 고윤정(동문) / 2구좌 고성호(일본) / 1구좌 이연신(재학생) / 1구좌 박보병(재학생)

일시납 누계(3.1~4.22) 8,785,112원 약정자 누계 (3.1~4.22) 29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3,480,000원